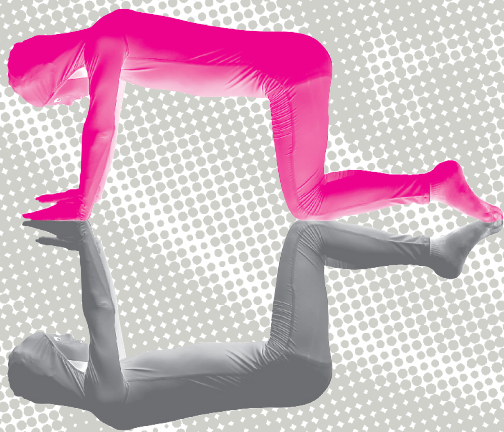




그림을 ‘읽는’, 혹은 ‘읽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예술분야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이런 종류의 책들이 심심찮게 순위에 오르내리고, 여러 매체의 서평칼럼에서 화제의 책으로 소개되고 있다.

현대인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림을 읽는 법’, 달리 말하면 ‘이미지를 읽는 법’에 대한 갈증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은 역설이다.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정작 ‘예술작품’이라는 권위가 부여된 이미지 앞에서는 면벽참선이라도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그림 읽기’ 트렌드의 확산이란 결국 이미지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정작 이미지에 의해 소외당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처지를 반영한다. 적어도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명 작품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교양이라도 갖추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런 세태 속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무명의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이라는 게시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연재물은 하루가 다르게 인기를 모아 어느덧 무명 블로거 ‘김치샐러드’는 연재물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여러 포털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소개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무려 삼백만 명이 ‘김치샐러드’의 독특한 그림읽기를 접했고, 결국 연재물은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2006년 8월에 발간된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학고재)은 벌써 예술분야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다.

손가락과 아귀,

‘우울海’에서

그림을 논하다

“1위도 할 수 있었는데, 때마침 배두나 씨가 사진집을 내는 바람에…”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의 저자 김치샐러드, 본명 윤명진. 낮가림이 좀 있는 듯이 보이는 인상의 이 스물아홉 살 청년은 이렇게 첫 마다를 꺼내며 씩스럽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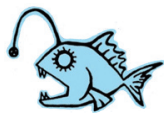
“솔직히 어리둥절해요. 저는 그저 삼사백 부나 팔릴까 싶었는데 베스트셀러라니. 제 이웃 블로거가 팔백 명 정도 되거든요. 팔리는 건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아서, 책이 나오면 팔백 부는 제가 사서 이웃 블로거들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했어요.”

김치샐러드의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선 다른 ‘그림읽기’ 관련 서적들과는 형식부터 다르다. 고흐·밀레·몽크·르네 마그리트·브뢰겔 등 유명한 작가들의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들을 소개하며 저자의 주관적 해석을 달아놓은 이 책은, 한 작품을 해설하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 관련된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그림, 심지어 인터넷에서 캡처한 뉴스화면까지 동원하여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하는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화평론가 박인하는 이 책의 추천사에서 ‘그냥 그림을 소개하는 건가보다’ 하고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은 기존의 그림을 활용하고 말풍선을 덧붙여 그림을 설명하는 놀라운 상황 해석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으로 만화의 한 장면을 설정하는 사진만화에 이어 그림의 아

우리가 제거된 21세기, 디지털 이미지와 디지털 편집기, 그리고 스캐너로 무장한 새로운 의미의 만화가 등장한 것이다”라고 이 책의 독특한 형식을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읽기’ 관련서적들은 미술평론가나 전문가들이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런 책들의 저자들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대중적’인 어법으로 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치샐러드의 그림 읽기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니라 평범한 감상자로서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해석이 돋보인다. 이런 그림 읽기에는 그림 속에서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의미를 끄집어내는 탁월한 주관, 자신이 본 것을 재치 있게 설명해내는 센스, 네티즌을 사로잡는 유머와 더불어, 읽다 보면 아련한 슬픔까지도 느껴지는 자신만의 정서가 듬뿍 녹아 있는 것이다. 전문가적인 권위로 지



식과 식견을 전해주지는 않지만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관점과 말투에 담긴 독특한 무엇,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시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시라는 게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시를 좋아하지만,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시가 아니면 뭘 할 수 있을지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관심 가는 건 다 해봤어요. 잡지사 기자도 해봤고, 방송사에서 FD도 해봤어요. 어디에도 정착 못하고 헤매다가, 이젠 정말 진로를 정해서 밥벌이를 해야 되는 이십대 중반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이 정말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죠. 꾸역꾸역 매일 똑같이 사는 게 지겹고 답답했어요. 이렇게 대충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게 인생이구나. 그림 속 태우면서 끝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죽고 싶다.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에서 소개하는 작품 중에는 유난히 우울하고 어둡고 분열적인 작품들이 많다. 뭉크·고흐·밀레·마그리트 등. 그리고 그가 그림 해설을 위해 일종의 내레이터로 설정한 ‘손가락’은 ‘우울海’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손가락은 어두운 ‘우울해’의 심연에서 심해어인 아귀를 만나 그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전체적인 설명을 이끌어어나간다.

“그래서 사소한 걸 하기로 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면, 그나마 싫어하지 않는 사소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로 한 거죠.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웬지 전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연히 문학이 아닌 미술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미술을 하려면 우선 공부부터 해야 했죠.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명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좋은 그림의 구도와 형식을 연구하려고 명화 읽기 같은 미술 교양서와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더 흥미가 생겼고, 웬지 대가들의 유명한 그림보다는 덜 알려진 그림들이 더 마음에 들어서 자주 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동안 공부하고 생각해본 것들을 이야기로 꾸미고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 개인 블로그에 올렸어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댓글이 오십 건, 백 건이 넘어가면서 방문자도 만 명 단위로 늘어났어요. 일부러 어둡고 칙칙한 이야기만 했는데, 대안 같은 건 없어도 좋으니 같이 눈물 흘릴 뭔가가 필요해서 늘 그런 그림에만 관심이 갔고 그런 그림 이야기만 했는데, 세상에 나처럼 우울한 인간들이 이렇게 많았나? 놀랐어요.”

블로거의 문법,

창작자의 작법

우울한 청춘을 보내던 무명 블로거 김치샐러드는 일 년 간 자신의 블로그를 오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깨닫게 됐다. 다들, 그렇게 속으로 어둠을 감추고 살고 있다는 것. 죽고 싶은 마음, 자기혐오, 우울함...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미술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얻은 자신의 감상들을 나누고자 블로그에 올렸던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술’을 해보자는 작정을 하게 됐다.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됐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 역시 블로그를



●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본 게맛살. 어쩐지 사람의 근육 같다는 연상에서 발전시킨 《게맛살 씨 이야기》. 김치샐러드의 첫 작품으로, 블로거들이 자신의 요리법을 공개하면서 과정을 보여주듯 제작과정부터 부패해서 사라지기까지의 132일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해보자는 것이었다.

“요즘은 이미지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모든 오프라인의 삶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갤러리 전시를 통한 작품활동보다는 미술도 온라인을 거점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전시회를 하면 하루에 스무명에서 서른 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들었어요. 창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결국 ‘보여주고 싶다’는 건데, 그런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운 거죠. 디씨인사이드 같은 사진놀이기구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면 하루 방문자가 기본 백 명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방문자 백명’을 목표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를 베이스 삼아서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는 작업을 해보자 한 거죠. 인터넷에 어떤 중학생이 올린 사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부좌한 불상의 손바닥 위에 친구의 핸드폰을 올려놓고 마치 불상이 문자질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만들어놓은 것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문자질하는 부처’. 이런 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 대한 미술적 해석이 아닐까 싶었어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중들끼리, 삶 속에서 느끼는 바를 재해석한 이미지들을 통해 소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어울리는 미술적 소통방식 아닐까. 20세기에 백남준이 TV 미디어를 미술적 소통의 화두로 들고 나왔다면, 지금은 결국 인터넷이 아닐까.”

스스로 ‘작가’가 되기로 한 김치샐러드는 처음 올린 작품은 〈게맛살 씨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흔히 사다 먹는 게맛살을 이용해서 인간의 안면근육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조형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맛살 씨’를 집 근처 어느 숲 속에 두고, 매일 한

번씩 ‘게맛살 씨’에게 들러 그의 초상을 사진으로 찍었다. 뜨거운 여름이었다. ‘게맛살 씨’는 매일 조금씩 썩어 숲의 흙 속으로 사라져갔다. ‘게맛살 씨’가 완전히 흙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132일이 걸렸다.

게맛살로 ‘게맛살 씨’를 만드는 과정부터 썩어 없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사진 연작 전체가 〈게맛살 씨 이야기〉라는 작품이다. 블로그에 요리법을 올리듯 재료구입과정부터 요리가 되기까지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찍어 올리듯, 김치샐러드는 ‘이야기와 과정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 올렸다. 작품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게맛살 씨’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은, 그냥 ‘이웃의 누구누구’라고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듯한 쓸쓸함을 안겨주며 보는 이들을 공감시켰다.

“〈게맛살 씨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매일 게맛살 씨를 찍으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작업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듯이, 매일매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뿌듯했어요. 작품이라는 게, 어떤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것 자체도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매일매일의 중요한 일로 여겨져요.”

〈게맛살 씨 이야기〉에 이어서 한번 시동이 걸린 김치샐러드의 작품 활동은 왕성하게 계속됐다. 녹차 티백 만 이천 개를 모아 사람 형상으로 만든 〈녹차인간〉이 공개됐고, 세탁세제를 이용한 〈잊지 않겠다 세탁불〉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차를 우려낸 녹차 티백을 모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옆에 녹차인간과 같은 자세로 조용히 누운 작가의 모습까지도 사진 속에 담아 올

렸던 〈녹차인간〉 작업은 묘한 쓸쓸함을 전해준다.

“녹차의 처지를 생각해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티백.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진액을 다 우려내고 버려지는 티백…. 그런데 사실 요즘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이 티백이랑 유사한 면이 많잖아요. 필요에 의해 만났다가, 연말에 주소록 정리할 때 보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의 주소는 깨끗이 정리되죠. 저도 누군가에게서 언젠가 잊혀지겠지만, 이 세상에 제 나름의 녹차 물을 우려내고 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생각으로 〈녹차인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녹차 티백을 모아서 제 키와 똑같은 인간 형상을 만들어보기로 한 거죠. 견적을 내보니까 재료비가 백만 원이에요…. 나중에 해야 하나? 주저하게 됐어요. 〈녹차인간〉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눌러왔어요. 하지만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태평양에 연락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포트폴리오를 보내 달래요. 포트폴리오는 없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설득해보려고 나름대로 기획서 파일을 만들어 갔는데 역시 보지 않더군요.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고,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녹차 회사를 죄다 돌 생각이었는데, 기획서 파일을 제쳐 두고 일단 ‘녹차’와 ‘녹차인간’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진지하게 얘기해보니까, 정말 의외로, 그 자리에서 협찬해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좀 엉뚱하긴 하지만 진정성 있게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 만 이천 개의 녹차티백으로 만든 〈녹차인간〉.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제작과정을 공개한 김치샐러드는 “날 위해 뜨거운 물에 뛰어들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가버린, 혹은 내가 버린 내 인생의 그 수많은 녹차들을 추억한다”고 적고, 녹차를 빌어 예술을 하는 자신의 입장을 은유한다. “또는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고 가버린 예술가의 초상, 되고 싶은 내 미래”라고.



● 일주일 동안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종로·청계천·송레문·보신각·시청·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중전화박스와 시소 위에 올라가기도 했던 〈OTL맨 in 서울〉. 촬영을 도와준 것도 이웃 블로거였다고 설명하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김치 샐러드가 가장 어렵다고 여긴 것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그만큼 어려운 것은 'OTL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좌절' 이후가 더 중요하겠다'는 점이었다. "OTL 자세가 어정쩡하잖아요. 좌절도 그래요. 완전히 엎어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거죠." 그래서 그는 퍼포먼스 마지막날 '좌절 금지'를 '좌절 환영'으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쉽지만 쉽지 않은

콜럼버스의 달걀,

‘공감과 울림’

최근 작업 중에서는 〈OTL맨 in 서울〉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OTL’은 사람이 땅을 짚고 엎드려 있는 형상을 표현한 이모티콘으로, 인터넷에서는 ‘좌절’을 의미한다. 〈OTL맨 in 서울〉은 김치샐러드가 하얀 타이즈옷을 입고 서울 곳곳에 출현해서 OTL의 자세를 재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남대문, 종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그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OTL맨의 모티브는 어느 날 본 텔레비전 뉴스였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총장실 벽에 빨간 스프레이로 온갖 구호가 쓰여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시위구호가 아니고, ‘잊지 않겠다. OTL’이라고 쓴. 어찌 보면 ‘OTL’이라는 이모티콘이 그런 상황에 어울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쩐지 그걸 쓴 학생의 울분이 강하게 다가오면서, 온라인을 벗어나 이런 상황에서도 쓰이고 있는 이모티콘 문화를 떠올리게 됐어요. 일단 ‘좌절’을 의미하는 ‘OTL’ 이모티콘이 얼마나 널리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사실 기원은 일본의 ‘OrZ’더군요.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도 쓰이고, 적어도 이 이모티콘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통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OTL맨 in Seoul〉을 시작하게 됐죠. 앞으로 도쿄, 북경에서도 해보려구요.”

게맛살이나 녹차, 세탁세제 등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모티

콘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코드를 적용해 형상화하는 김치샐러드의 일련의 작품들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 게 미술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다.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흔한 소재로 쉽게 만들어낸 작품들이지만, 그만큼 공감과 울림의 폭이 넓은 메시지를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인 형식으로 담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과하게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작품을 올려보면 악플도 많이 달려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애초에 제가 목표했던 것 중 하나는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라도 꾸준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제 정서를 공유하는 몇몇 사람들인 거죠. 제가 창작자로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저건 김치샐러드 작품이다’라고 알아봐주는 사람들 몇몇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생각. 그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작품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계속할 거예요.”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의 본문 마지막 장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아귀: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으면 되잖아.

왜 살아 있는 거지?

손가락: 목을 맨 적이 있어. 하지만 죽지 못했어.

아귀: 왜?

손가락: 침 때문에... 줄이 목을 꼭 조이면서 숨을 쉴 수 없었어. 답답하고 목이 아팠지만 서서히 정도가 약해졌지.



● 〈잊지 않겠다 세탁볼〉은 우리가 쓰는 세제가 물에 녹는다는 경험을 묘하게 반추시키는 작품이다. 세제를 물로 반죽해서 동그랗게 빚고, 눈과 코를 만든 다음 촬영을 하고, '더러운 빨래와 함께 더러운 기분'도 함께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창작 이후의 과정은 묘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 결과를 보여주며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집어 넣는다'는 대목에서 묘한 '반전' 혹은 '좌절'의 정서를 환기시킨다. 그래서 '차라리 깨끗하게 잊어버리지'는 반전과 '잊지 않겠다'의 대비는 더욱 선명해진다.

숨을 못 쉬어 머리가 몽롱해져 갔거든.
그런데... 입에 침이 고이는 거야. 목이
줄려 있어 침을 삼킬 수가 없었어.
입 안 가득 침을 머금었어. 완전히 정신
을 잃게 되면 입에 힘이 빠져 침을 흘리
겠지. 침을 질질 흘린 채 죽어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
싫다... 그런 내 모습 진짜 싫다...

아귀: 그래서 침 때문에 목에 맨 줄을 풀었어?
손가락: 응... 침 한 방울만큼의 희망.

차라리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 속
이었다면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둠뿐인 그 순간에 침 한 방울만
큼의 희망이 보이다니.

아귀: 어떤 희망이었는데?
손가락: 지금의 내가 순대 같긴 하지만, 어쩌면
앞으로는 다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막막한 어둠 속에서 그림을 보며 막연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실마리 삼아 스스로 작가가 된 김치샐러드
윤명진. 그는 '막연한 희망이 있다면, 그 다음엔 상상력
이 널 구할 거야'라고 말한다. 이 것은 그의 좌우명이기
도 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은, 우리가 지금 ‘아프다’는 사
실이다.’

어느 시집의 발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15년쯤
전, 한참 청춘의 마음앓이를 하던 필자의 눈에, ‘번쩍!’
하고 들어온 구절이다. 어느 시집이었는지, 이제는 기
억나지 않지만, 한동안 가슴 속으로 중얼중얼 되뇌던

구절이라 지금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
다. 그렇다. 대체로 우리는 아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몸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
픔일 때, 뿔뿔하게 정면에서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대
신 피해가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우리
는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오해다. 사실은
아픔만이 진실이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마침
내 희뿌연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희미한 희
망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건, 상상력이다. 당신이 비록
작가가 아닐지라도, 삶에 대한 상상력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글쓴이 | 김유령

월간 〈페이퍼〉의 편집위원과 방송작가·시나리오작가·문화비평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영화사인 ㈜우사이필름의 제작자사로 일하고 있다.